

화려한 미사여구로 거듭 표현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명모호치(明晦齒)', '절세미인(絶世美人)'이라는 풍문만 듣고 모른다. 감동의 폭이 배좁다.

민음사에서 출간한 두 책에서 주인공은 글이 아니라 이미지다. 직접 대상을 만나 그만의 아우리를 오감으로 오롯이 느껴

보는 것. 편집진은 특정 대상을 향한 설명과 해석보다 그것 자체를 직접 만나보는 지면을 마련하고 싶었다고 전한다.

'읽는 책'이 아닌 '보는 책'을 만들어보겠다는 야심이였다.

# 설명과 해석 잠시 접고, 우선 봅시다!

## 고품격 '보는 책'으로 만나는 우리네 대표 유물들

신으로 알려진 민음사 박상순 대표이사와 편집부측에서 비롯됐다. 대한민국 하이라이트 유물의 사진자료는 얼마 전 새롭게 개관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협조를 받았다. 또한 문자디자인계의 대표주자 글씨미디어의 홍동원 씨축이 박 대표와 함께 아트디렉터 역할을 맡아주었다. 올 늦은 봄부터 시작해 11월에 출간을 완료했으니 물리적 제작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 셈인데, 그만큼 집중도가 요구됐던 작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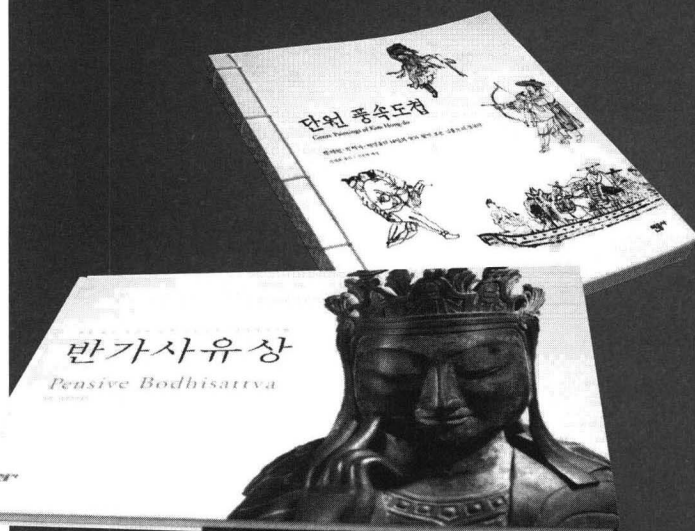
### 신상(神像)의 정면, 측면, 후면을 모두 담은 '파격적'인 편집

국보 제78호 금동일월식삼산관반가사유상과 국보 83호 금동연화관반가사유상을 소개한 《반가사유상》을 먼저 펼쳐보자.

"한국의 미와 관련된 책들은 비슷비슷한 판형에 자료사진 정도로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희 책의 경우 이미지를 확대한다 해도 작은 판형에 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키우고 또 키우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판형을 잡게 된 겁니다."

책은 외양도 놀랍지만 펼쳐봤을 때 더욱 놀랄 일이 많다. 당연히 반가사유상의 정면과 마주하겠거니 짐작했지만, 첫 장에선 갈고리처럼 매끈하게 구부러져 턱까지 뻗은 부처의 오른손이 불쑥 얼굴을 내민다. 국보 제78호 금동일월식삼산관반가사유상. 매끈한 곡선으로 여성미를 그득 내뿜는 손가락의 곡선과, 암전히 다문 도톰한 입술과 함께 보면 둥글둥글한 정감이 느껴진다. 뒤이어 나오는 이미지들은 부처의 손 부위를 시작으로 측면, 정면, 후면 등을 입체적으로 포착한다. 벽에 붙은 유리관 안에 전시돼 정면만 보이는 부조형 환조가 아니다. 사면 유리관 속에 담긴 환조 작품을 사방에서 감상하는 기분이다. 감히 바로 쳐다볼 수 없는 신상(神像)이 아니다. 예술작품을 만나고 온 느낌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게 '떨어' 집니다. 동작, 자세, 균형 이런 것들을 유심히 봐주셨으면 해요. 저희도 모르게 자꾸만 판형을 키웠던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전체



《반가사유상》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 강우방 글 | 민음사 | 60쪽 | 값 45,000원

《단원 풍속도첩》 안대희 옮김 | 진준현 해설 | 민음사 | 120쪽 | 값 40,000원

《반가사유상》 《단원 풍속도첩》은 외양도 독특하다. 《반가사유상》은 440×297mm의 과감한 판형을 택했다. 들고 다니긴 무리가 있고, 티 테이블 북을 연상케 하는 그 곁에 차 한잔 놓고 보면 제격이다. 《단원 풍속도첩》은 전통 수제본 형식의 독특한 제작 기법이 눈에 띈다. 책보에 넣어 서당으로 발길을 재촉할 만한 분위기다.

"반가사유상이나 김홍도에 대한 책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품들이 가진 아우리를 직접 느껴본 독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그야말로 감상하고 즐기는 책으로 만들자는 게 저희 의도였습니다."

편집을 담당할 천정은 씨 말에 따르면 고품격 '보는 책'이 탄생하기까지 꽤 많은 인원이 동원됐다. '발의'는 디자이너 출

적으로 보이는 아우라 자체를 전하려면 정면을 크게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구사책에도 나오거든요. 이 유물의 여러 모습을 다각적으로 보여 주면서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이해했으면 합니다.”

말미에 설명을 단 이화여대 강우방 교수는 “구원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구현했다”고 적었다. 실제로 편집 과정 중 무릎위에 팔꿈치를 기대고 볼에 손가락을 댄 반가사유상의 자세를 여러 번 따라해 봤다며 웃는 천 씨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자세”였다는 소감을 말했다. 보는 이에겐 편안함, 안정감을 전해줄지 모르지만 막상 앉아 있는 당사자에게는 적잖은 인내가 요구된다는 뜻이다.

작업 과정 중 다양한 이들이 로맹의 <생각하는 사람>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나 이 책을 만들며 작품을 여러 각도에서 곱씹어 본 천 씨 눈에 분명 다른 뭔가가 보인다. 개인적인 감상일지 모르겠으나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고민보다, 한층 근원적인 문제에 다가서고 성찰하고 있는 태도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사실 이런 책 편집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유물을 다룬 도록 형태의 책이기 때문에 색감을 정할 때도, 트리밍을 할 때도 대중 결정할 수가 없지요. 책을 내고 나서 뿌듯하기도 하지만, 실제 현존하는 유물인 만큼 그것이 지닌 아름다움을 그대로 전할 것인가 걱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 단원의 도록 복원 작업, ‘컨서버터’ 된 편집자

책보에 담으면 제격일 법한 <단원 풍속도첩>을 준비하면서, 단원이 그린 그림의 원본을 그대로 복원하고 싶었다. 그 덕에 편집자는 ‘컨서버터(미술품보존, 복원사)’로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했다. 결국 작품색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지질과, 인쇄, 제본에 있어서도 당시 풍속도첩이 사용한 제작기법을 시도했다.

알려져 있다시피 서양식의 인쇄 방식은 양면 인쇄다. 지금 우리가 읽는 대개의 책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우리 전통인쇄 방식은 한 면에, 두 면에 들어갈 내용들을 나란히 인쇄한 후 종이 중간을 접는다. 이렇게 한 장 한 장 완성된 페이지들을 묶고 표지 앞, 뒤를 붙인 후 실로 묶는다. 이것이 전통 수제방식이라 부르는 선장<sup>線裝</sup>이다. <단원 풍속도첩>은 원편에 다섯 개의 구멍을 뚫어 실로 묶는 조선시대 오침안정법<sup>五針眼正法</sup>으로 마무리 됐다.

“제작비가 만만찮게 들어가죠. 그리고 문제는 하루에 서른 권 밖에 제작을 못한다는 겁니다. 나오는 데도 적잖이 시간이 들어갔지만 이것 자체가 소장 가치가 높고 독자들에게 오랜 기간 보관되었으면 하는 의미로 시작한 작업입니다.”

‘복원’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원본과는 조금 다른 모양새가 보인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편집’이다. 본래의 풍속도첩과는 달리 이 책은 왼쪽 페이지에 그림을, 오른쪽 페이지에 글귀를 담았다. 박제가, 정약용 등의 글은 명지대 안대희 선생이 직접 선택해 번역했다. 본래 한 문치로 있던 텍스트였다면 어려울 것

없겠지만 수많은 고문서중 이미지와 찰떡 궁합을 이루는 문장을 찾아내는 데 품을 많이 들었다. 그렇다고 그림 감상에 방해를 할 만한 뻑뻑한 글썽은 아니고 추임새처럼 등장하는 적당한 만큼의 글귀들이다. 그림과 관련된 글 외에 중간 중간 김홍도에 대한 인상을 담은 문장들도 보이는데, 이를 읽는 재미도 만만찮다. 특히 풍체가 아름답고 활달하며 구속됨이 없는 인물로 그를 평한 조희룡의 설명이 흥미롭다.

“다음장을 넘기면 확대컷이 나옵니다. 앞에서 빨래하는 아낙들 모습을 원본 크기로 보셨다면 뒷장에서 빨래하는 아낙들의 표정을 가까이서 볼 수 있죠. 글로 인해 그림이 자칫 안 보일까 해서 뒷면에 강조하는 지면을 마련해본 겁니다. 풍속화인 만큼 박제된 이미지들이 아니라 살아 있는,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로 느꼈으면 좋지요.”

두 책은 나오자마자 독일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에 올랐다. 민음사측은 ‘오늘의 작가총서’와 두 권의 책을 2005년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을 통해 해외에 소개했다. 현장에서 해외 출판인들의 다양한 반응을 지켜본 천 씨는 “글로 설명하는 책은 그것을 알리는 데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 책처럼 이미지로 바로 느낄 수 있는 책들은 그만큼 흡수, 인지 속도가 빠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지금, 출판사측의 바람은 당장의 저작권 수출, 세계화를 내다보기보다 두 책을 우선 국내 독자들부터 많이 봐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런 한국 고유의 콘텐츠들을 정색하며 바라볼 게 아니라 거리감 없이 접하고 감상할 기회를 가져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두 권 중 <단원 풍속도첩>에 좀 더 애착이 간다는 천 씨는 행여 찢어질까 걱정돼 서양 방식의 케이스를 마련했으니 오래두고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성인들에게 우리 문화 체험학습 기회를 제대로 마련해 줄 두 책은 초판 1,000권만 찍은 상태다. ☞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보는 책’을 지향하는 두 책의 편집 과정을 설명하는 편집부 천장은 씨.